

# 당도 높은 전남 '오매향' 애플망고 올 34t 출하

서영광농협 생산·유통...영광 6농가 12.5ha 재배  
농협 하나로마트·수도권 대형 매장·온라인서 판매  
신규참여 농가와 산지 출하협의...수도권서 판촉 행사

전남 아열대 농산물 브랜드 '오매향'을 내건 애플망고가 올해 34t 출하할 전망이다.  
4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1달 동안 영광을 주산지로 애플망고가 생산된다.  
올해 출하 예상 물량은 34t으로, 서영광농협이 생산·유통에 참여한다.  
전남농협은 지난해 선진농 위주로 애플망고 홍보에 힘쓴 반면, 올해에는 신규로 오매향에 참여하는 소규모 농가들을 육성하고 조직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영광에서 애플망고를 재배하는 농가는 모두 6곳이다. 이들이 재배하는 면적은 12.5ha 정도다.  
지난해 출시된 '오매향' 애플망고는 백화점과 대형 유통업체 등을 통해 약 7t의 판매고를 올렸다.  
올해 출하된 '오매향' 애플망고는 하나로마트 등 농협 계통매장과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판매업체 등에서 만날 예정이다.

전남농협은 지난 5월20일 광역브랜드 '오매향'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1차 농가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달 4일에는 2차 간담회를 열고 마케팅 계획을 세웠다. 같은 달 17일에는 애플망고 재배농가 작황조사를 벌여 품질을 살폈다.  
지난 달 28일에는 영광 애플망고 재배시설에서 올해 처음 수확한 애플망고 및 전남 아열대농산물 브랜드 '오매향' 신규참여 농가들과 산지 출하협의 했다. 이달 오매향 애플망고는 수도권 구매 담당자(바이어)와 출하협의를 한 뒤 소비 판촉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매향 애플망고는 과실 표면이 밝은 선홍색이다.  
시중 상품보다 달달한 향이 더 풍기고 당도는 1~2브릭스 이상 높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팜 농법으로 동일한 품위와 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 애플망고 농장에는 온·습도·수분공급을 자동 조절하는 시설하우스와 지속적인 일조량



전남 아열대작물 브랜드 '오매향' 애플망고 상품.

유지, 과수별 화분재배 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전남은 전례의 자연환경을 통해 매년 애플망고를 비롯한 바나나, 만감류 등 다양한 아열대농산물의 재배능가가 증가하고

있다"며 "신규 유입농가의 조직화를 통한 규모화로 전남을 아열대농산물의 주산지로 육성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광주 찾아 현장 간담회



농협 광주지역본부에 이성희(사진)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2일 광주를 찾아 지역 조합장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회장은 광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과 '힐링 플라워 스마트팜'을 찾아 현장

점검했다.  
이날 청년조합원 증대와 농촌일손부족 해소, 유통 혁신, 디지털 역량 강화,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농업의 역할 등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이 회장은 간담회 이후 광주시 서구 차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3회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 참석했다. 그는 박람회에 참가한 농업기업들을 격려했다.  
오는 7일까지 농협 하나로클럽 광주점에서는 농식품 부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판로지원을 위한 '함께가게'가 운영된다.  
이 회장은 "미래농업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었다"며 "농산물 유통혁신과 광주농업·농촌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도 전남' 무색 농업 인구 20년 만에 '반토막'

60만6000명→27만9000명  
소득 4400만원 전국 97% 수준  
지난해 전남 농업인구는 27만9000명으로, 20년 전에 비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소득은 배로 늘었으나 부채 또한 30% 넘게 증가했다.  
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가 최근 발표한 '2000년 이후 전남 농업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농가(축산업 포함) 수는 13만6000가구로, 20년 전인 2000년(23만3000가구)과 비교해 41.4% 줄었다.  
농가인구는 2000년 60만6000명에서 지난해 27만9000명으로, 54.0% 감소했다.  
전업농가 수도 8만6000가구로 2000년 16만

2000가구에 비해 46.5% 줄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농가 인구에서 전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12.0%로 경북(15.2%)과 경기(13.4%)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농가 평균 소득은 4400만원으로 2000년(2147만원)에 비해 2220만원(10.4%) 늘었다.  
전남 농가의 평균 소득은 전국 평균(4530만원)의 97.0% 수준이다.  
연도별로 2017년에 전국 평균 대비 103.7%로 가장 높았고 2009년에는 81.8%로 가장 낮았다.  
광역시를 제외한 도(道) 단위 9개 광역 지자체 중 경남(90.1%), 충북(95.6%)에 이어 소득이 낮았다.  
농가 평균 부채는 2531만원으로 2000년(1908만원)에 비해 623만원(32.6%) 늘었다. 이

는 전국 평균(3759만원)의 67.3% 수준으로, 빚 규모는 다소 적었다.  
논·밭(경지면적)은 28만6000ha로 2000년에 비해 4만6000ha(13.8%) 줄었다.  
논은 24.3%(5만4000ha) 줄었지만 밭은 7.3%(8000ha) 늘었다.  
쌀과 쌀보리 생산량은 20년 전과 비교해 각 34.8%와 36.7%가 줄었으나 봄감자는 9.0%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늘과 대파는 각각 69.1%와 1.6% 감소했고 양파는 9.5% 증가했다.  
소와 돼지는 각 56만7000여 마리와 118만3000여 마리로 85.6%와 55.5% 늘었고, 닭도 1914만 마리로 89%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협 전남본부, 축산 방역요원에 물품 지원

여름철 시설관리 강화 당부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여름철을 맞아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으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전남농협은 박서홍 전남본부장과 임정모 농협 무안군지부장, 문만식 목포무안신안축협 조합장이 최근 목포무안신안축협 TMF사료공장을 찾았

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방역요원을 격려하고 소독약, 방역복, 장화, 아이스조끼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전남농협 농협공동방재단은 101대 방역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해 지기 쉬운 소규모 농가와 전통시장, 밀집 사육지역에 대해 총 23만회 이상 소독을 할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구제

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축산농가 스스로가 축산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며 "농장별 장화 갈아 신기 및 손 씻기, 구사·구충 작업, 외부인 및 차량 농장 출입금지 등 방역 기본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또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에 의한 축산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배수로 정비, 전기안전점검 등 축산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신안 '임자만났네 휴양마을' 연 매출 3억 목표



지난 달 29일 신안 임자만났네 체험휴양마을 '팜투어' 참가자들이 커뮤니티센터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제공>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성한 신안군 '임자만났네 체험휴양마을' (임자면 진리)은 올해 매출 목표를 3억원으로 세웠다고 4일 밝혔다.  
이 마을은 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가 임자진리 권역사업을 통해 지난 2017년 체험휴양 기반을 조성한 마을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갯벌 및 카약체험, 생존수영, 용난골 탐방, 스마트팜 및 농업 체험, 드론체험 등이 있다.  
최대 35명이 숙박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에 머무르며 '전남 한 달 살아보기' 체험도 할 수 있다. 신안 엘도라도 리조트는 이 마을과 업무협약을 맺어 숙박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KRC전남지역개발센터는 지난 달 29일 임자만났네 체험휴양마을 '팜투어'를 진행했다.  
강산(33) 임자만났네권역 마을협동조합법인 사무장은 "임자만났네 체험휴양마을은 연 평균 매출 2억5000만~3억원을 기록하며 4000만원 상당 순수익을 내고 있다"며 "올해는 마을학교와 체험·숙박 프로그램을 펼친 결과 진리마을 주민 611명 중 30% 이상이 20~30대일 정도로 도시민 유입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웰촌(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도초섬 내, 시세 9억**

- ▶ 회사 정리 차원에서 그냥 드립니다.
- ▶ 임야 29,455㎡(구 8910평), 전망 좋음
- ▶ 대출 1억2천만원, 사채 1억, 승계 가능자

상담문의. 010-3605-5000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사 모십니다**

▶ H. 010-2928-0202

**오피스텔 부지, 급매**

- ▶ 광주광역시, 대지 582㎡(구 176평), 상업지역
- ▶ 지하1 지상10층, 15평, 72개 허가득
- ▶ 매 - 23억(평당1300만원)

주식회사 미르. 010-3605-5000